

남원 흥부제 10월 11일 개막

다양한 형식의 흥부전 · 먹거리 장터 등 제공

남원의 대표 축제인 흥부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흥부(興富)'가 돌아왔다'라는 주제로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신명나게 펼쳐진다.

이번 제27회 흥부제에서는 기념행사, 공연/경연, 문화체험, 부대행사의 4개분야 21개종목의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해 흥이 넘치는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부분에는 퓨전국, 소리극, 태권도 등 다양한 형식의 흥부전을 통해 색다른 흥부를 만나볼 수 있고, 마마무, 하성운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 흥부가면속 명가수를 찾는

'흥부가왕', 그 외 소규모 거리공연이 축제장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방문객을 즐겁게 할 것이다.

어린이 동반 가족방문객을 위한 흥부 놀이터, 관광객과 어울려 웃고 즐기는 응고집 놀이관, 누구나 참여하는 대결 흥부놀이 명랑운동회도 펼쳐지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먹거리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설시장 활성화와 함께 활동중인 월매야시장과 축산물부들, 푸드트러, 남원에촌 셀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먹거리 장

터와 체험거리 공간을 제공한다.

그 외 다양한 부대행사로 남원지역 전통을 이어가는 흥부골 남원 농악대회와 남원예술제가 펼쳐지며, 27회째를 맞는 금과 강도근 전국 판소리경연대회와 전북에너지스포츠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지역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백일장, 그림그리기, 독후감대회도 함께 열려 흥부전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남원시 이현재 관광과장은 "올 제27회 흥부제는 남원시 대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위해 다양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19 임실N치즈축제 준비 착착

심 민 군수, 국화재배현장 찾고 회의 주재 등 진두지휘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19 임실N치즈축제'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빈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임실군은 9월 '2019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보고회를 열어 축제 프로그램과 축제장 구성, 교통대책, 관광객 먹거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준비상황을 세세히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고향 임실을 찾는 출향민과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대도시 거주 나들이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향민과 나들이객들이 10월에는 임실N치즈축제 현장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제 홍보본 야를 집중 점검했다.

군은 지난 5월 라디오 광고를 시작으로 SNS, TV광고, 지면광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축제 홍보를 지속해 오

고 있다.

11일 대전의 대표 관광지 은행동 스카이로드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21일은 순천만국가정원, 9월 28일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임실N치즈축제의 또다른 볼거리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로 수놓일 축제장 구성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심 민 군수는 최근 임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등 축제 행사장에 전시할 국화 생산현장 3곳을 직접 방문하여 국화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군은 2만 5천여개의 국화 화분을 이용해 국화를 차질없이 재배하고 있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 해 미흡한 점을 대폭 보강하여, 무료셔틀버스 증차 운행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

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임실 맛집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향토음식관 운영의 차별화를 시도했으며, 밤 시간에도 환상적인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 LED 야간경관 및 조명을 설치했다.

치즈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을 활용한 조형물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존도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해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대표 왕치즈피자 만들기과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임실N치즈페어 등 9개 테마 80여개 프로그램이 흥겨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심 민 군수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 치즈마을에서 개최되는 2019 임실N치즈축제는 작년보다 더욱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은 물론 천만송이 국화의 향연 속에 가을의 진풍경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추석연휴 가축질병 유입 차단 총력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은 귀성객과 군민들에게 발생국 해외여행 및 축산물 수입 자제와 아울러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 ·외 소독 등 자발적인 차단

방역을 당부하고 나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가 감염될 경우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100%에 가까운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은 뿐

만 아니라 오염된 육류의 경우 매우 위험한 감염원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후 국내 입국시 동물이나 육류, 햄, 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말아야 하며, 위반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시설과 농장에 대해 청소 및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오는 17일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장(醬) 담그기 체험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순창서 장(醬) 담그기 할 사람 다~ 모여라

30일까지 선착순 모집

순창군이 장(醬) 담그기 체험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22개교 948명이 장(醬) 담그기 체험을 위해 순창을 다녀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특히 점차 집에서 장을 담그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학교단위 체험문화로 장(醬) 담그기 체험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군은 하반기에도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재인 장(醬) 담그기 체험을 위해 전통장 농촌문화학교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30명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인기를 누린 만큼 마감일 전 조기마감이 예상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전통장 농촌문화학교'는 1박2일

또는 당일 순창에 머물며 관내 유명관광지 투어는 물론 시골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과, 도시민들이 평소 접하지 못한 전통 장 담그기를 민속마을 기능인과 함께 담가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전통장 담그기 체험 인기가 높아져 순창고추장민속마을 기능인들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체험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 순창만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로 지난 8월 개장한 순창 '강천산 단월야행'을 통해 새롭고 변화한 강천산 밤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여기에 음악공연과 승마체험, 카누 체험 등 액티비티 체험도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시민의 장 확정 발표

남원시는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각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남원 최고영예의 상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4개 부문 4명을 9일 발표했다.

문화체육장 이동수(88, 향교동)씨는 현재 남원향교 사무국장으로 전통문화 및 청소년 교육에 기여 하고 유교문화 활성화 및 문화재 수호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되었다.

산업근로장 김종규(80, 동충동)씨는 농업용 작업기 전문 생산업체 주)세움의 대표로, 이랑쟁기인 'OK쟁기'를 시작으로 선진화된 생산설비와 엄격한 품질관리로 농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애항장 박한근(80, 영등포구)씨는 2003년부터 재경남원향우회 활동을 통해 남원특산물 애용, 장학금 지급, 소외계층 후원 등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

효열장 박진균(86, 수지면)씨는 서울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고향에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위해 14년간 700여회 서울-남원을 오가며 농사일을 돕고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양심화본 꽃 주변환경 변화

임실군의 양심화본 조성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월 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했다.

군은 내대지, 후미진 골목 등 주요 시가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투기 지역을 조사 후 쓰레기 더미가 있던 지역에 양심화본 20개를 10개 지역에 배치해 청결하고 아름다운 지역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양심화본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불법투기 감시자로서 내 동네는 내가 깨끗하게 지킨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활짝 핀 꽃은 정서함양 및 보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등 주민 반응이 좋아 양심화본 배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군은 하천변, 야산 등 인적이 드문 장소 20개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계관을 설치,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차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